

사설

불평등 종교정책 바로 잡자

지난 1월21일 김영삼대통령의 군인교회 예배참석에 대하여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미 실천 불교승가회를 비롯한 20여개 승가·재가 불교단체가 연대하여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지금 어는때인가. 불교계 안팎에서는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각종 편파 방송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 때이다. 이러한 일들로 우리 불자들은 큰 상처를 받고 있는데, 이를 치료해 주지는 못할 망정 더욱 아프게 자극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현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편파적 종교정책으로 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아 왔다. 청와대 예배 파문을 비롯하여 부활절 검정고시 일차 연기사건, 군법당 불상훼손사건 등 크고작은 불건·부당한 사건들이 줄지어 일어났다.

이번 일의 진상도 상세히 밝혀져야 마땅한 일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 보면 사건전날 '대통령참석에 배'를 기독교장병들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타종교 장병들에게 일직과 당직을 강요하는 사태까지 있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대통령경호를 이유로 국방부 종교센터 내에 있는 군법당 출입을 통제하는 바람에 불자들의 일요정기법회 등의 신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자 한다.

첫째, 현정권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이 담고 있는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을 새삼 인식하고, 이

에 위배되는 편파적 종교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특히 우리 한국사회는 여러종교·종파가 공존·공생하고 있다. 이러한 다종교사회에서는 국정책임자들의 엄정한 종교적 중립이 요구된다. 특히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민족문화창달에 노력'할 것을 모든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하고 있는 각종 종교행사에 있어서는 엄연히 대통령이라는 공인(公人)의 자격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방부내에 있는 종교센터는 공공기관임을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기회에 각종 감인정교과사에 나타난 특정 종교비호사태 등 현실적으로 구석구석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 종교불평등정책을 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관한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셋째 정부는 차제에 1600년이 넘게 우리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온 찬란한 불교문화의 중요성을 거듭 바르게 인식하고, 이러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데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리와 맥을 정확히 알고, 널리알리는 교육·홍보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더이상 특정종교를 비호하거나 민족문화유산인 불교를 중시하는 편파적 종교정책을 버리고,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자는 깊은 참회를 통해 2천만 불자와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속히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불자들도 불교의 명예와 자존심을 유지하는데 더욱 조적적이며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열린 마당

물을 아껴쓰자

공해등 환경오염 가뭄 주요인

정 덕 (스님·지비의 전화 회장)

물은 우주의 모체와 같고 젖줄과 같다. 즉 에너지 역할을 한다. 물이 없으면 이 세계는 정지하고 만다. 우주의 만물이 물에서 생기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우주의 이치가 이러하듯이 우리의 인체도 마찬가지다. 물은 곧 인체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체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중에 하나이다.

날로 격변하는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온 오염된 환경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런 공해환경으로 말미암아 이 생기가 생겨 가뭄이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기후의 근본적인 것은 과학 발달과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가뭄을 경험삼아 환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하겠다.

오염되지 않는 사회는 물도 오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또 물을 아껴쓰고 맑은 물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절약을 생활화하여 어려울 때 일수록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사부대중이 앞장서자.

전문가의 의견

남부지방에서 비가 왔다고 하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 않다. 작년에도 가뭄이 심했음을 상기할 때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지 않게 걱정이다. 자연의 이치는 완만한 변화가 반복하는 사이 치유불능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디오피아의 수단도 사람살기에 알맞은 땅이 사라화된 예이다. 이것은 기후대가 변하고 있음을 뜻한다. 재쟁무상(諸了無常)으로 표현하듯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존재가 없을 줄을 알고 있다.

물은 비에서 시작된다. 빗물은 주로 우수(雨水)가 되어 경사진 곳을 향해 혈관처럼 전진을 감싸 안고 흐른다. 모든 수계망은 장강대하(長江大河)를 이루어 바다에



오 홍 석 (동국대 교수·지리학)

흐르고 있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하천오염이 지하수로 연계되고 있을 줄을 모르고 지하의 생수에만 의존

한방울 물도 재활용하는 마음

이 선 미 (주부·서울시 휘경동)

겨울가뭄이 극심하다. 경북 동해안과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3개월여 동안 비다운 비를 구경하지 못했다고 한다. 가뭄지역이 경북과 충청내륙에 이어 강원도 동해안까지 북상해 곳곳에서 비상대책을 강구중이라하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가뭄이 유난히 심한 포항의 경우는 사흘에 한방울 나오던 수도물마저 세해들어서는 끓긴 수도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먹을 물을 위

해서는 만사를 제치고 매일같이 소방차 앞에 줄을 서고, 목욕은 엄두도 못낸다는 하소연이다. 물론 이런 때에 국가차원의 시급한 가뭄대책도 중요하지만 국민개개인이 불합방물이라도 아껴써 가뭄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의 고통



을 덜어주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특히 가뭄극복에는 주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과다한 세계사용량을 줄여 설거지물과 빨래물을 절약하고, 세수한 물에 빨래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설거지물에 걸레를 댄다든지, 그리고 변기 물탱크에 물을 넣어 물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다. 목욕탕에서 무심코 수도를 틀어 놓던 목욕습관도 이제는 고쳐야 할 때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고도 쉬운 것들이다. 가정에서 먼저 절약할 줄을 알면 좋겠다.

'물은 무한하다' 생각버려야 무분별 개발이 수자원 고갈

모여들므로 분포비율에서 비닷물이 거의 정부를 차지한다. 비닷물은 염수이지만 육지에 비를 뿌리는 근원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순환작용은 땅 속으로도 진행된다. 그러므로 순환체계를 따라 유해물질이 혼합될 경우 전체의 수권(水圈)이 질산나게 된다. 지표수는 상류에서 하류로 흐른다. 그래서 강하류에 인구집단과 산업시설이 집중된 도시가 들어선다. 생활배수와 산업폐수를 방류하는 곳이 도시이고 희석(稀釋)하는 것이 유량하므로 수질오염은 하류로 갈수록 가뭄이 들수록 심하다. 반대로 청정도에 기초한 수질은 상류에 양호하므로 모든 도시는 앞을 다투어 취수장 이전에

하는 어려움이다. 이제 산성비가 대지를 적시고 농약과 비료의 용해수가 땅 속으로 스미는 상황에 와 있다. 특히 중금속은 당초에 문제되지 않은 소량의 것도 장기간 농축되는 사이에 위험수위에 도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관정(管井)을 뚫고 있으면 이것은 오염수의 지하삼투를 돕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지하수의 용량이 한정되거늘 무분별한 개발과 과열된 채수행위는 지면의 안락으로 수자원의 고갈상태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물이 무한한 것으로 착각하거나 순환체계에 대한 물지각을 바로 잡고 절수(節水)를 실천할 때이다.

기상전문

대륙성 고기압영향 봄까지 가뭄

3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겨울가뭄은 한반도 상공에 넓게 퍼져있는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3~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래 겨울철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기후대이나 올 겨울을 비롯하여 최근 3년간 계속된 가뭄은 남태평양의 해수온도가 높아 북극의 찬기류가 한반도 이남까지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름 장마철에 연간 강우량의 90%가 내리는 강우특성상 해결될 수 있는 강우량인 400mm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절수요령

겨울가뭄이 극심하여 절수운동이 필요한 때다. 환경부의 수도물 아껴쓰기 요령을 소개한다. ▲양치질이나 샤워, 면도할 때는 수도꼭지를 팔히 잠그도록 한다. 또 물을 컵에 받아서 사용하면 5 l의 물이 절약된다. ▲자동차 세차시에도 불꽃을 사용하여 물을 절약하고 차의 지붕부터 씻어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을 사용한다. ▲설거지는 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물오염을 최소화하는 천연세제를 사용하는 것도 가뭄대책의 한 요령이다. 환경부는 가정에서 절수를 생활화하여 물사용량을 20%줄이면 부산시민이 사용하는 하루 수도료(1백62만톤)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목어

대통령이 종교를 가졌다고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많은 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사회에서 대통령의 종교생활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이미 김영삼정부 출범 초기에 있었던 청와대 예배파문이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 또 김대통령의 신앙생활이 물의를 빚고 있다. 김대통령은 1월21일 부인 손명순 여사와 국방부 국군중양교회에서 예배를 보았다. 그 자리에는 교회장로인 권영해 안기부장과

이양호 국방장관이 배석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불교계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거센 항의를 하고, 일반인들도 삼식 밖이라는 표정이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지켜야 할 종교활동에 대한 절제와 균형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줬다." "기독교 장병들의 '대통령참석예배' 참여를 위해 일직·당직을 대신하느라 일요 정기법회에 참석 못하더니..." "대통령이 기독교장병들만 위

모하고 같은 종교센터안의 범당이나 성당의 신자들 출입을 통제했다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다... 장병들에게 위화감을 갖게하고 깊은 상처를 입혔다... 군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군대내 종교적 형평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헌법을 준수하는 대통령인지 전도사인지..." "통치권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전군을 기독교화 할려는..." "대통령이 특정종교를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닐까..." 불교계 20여 단체의 성명서는 한결같이 "대통령은 종교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화합을 위한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은 자신의 위치와 직무를 생각할 때 이런 파문을 왜 예기치 못했을까. 경전에서는 통치자의 善政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임금은 백성을 차별없이 사랑해야 한다" "왕은 백성을 부도모고 갖는에 생각하듯 하고 괴로움과 즐거움을 파악해야 한다" "좋은 왕이란 정의에 의해 다스림으로써 만민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새싹별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보은의 길

만약 부모가 신심이 없거든 신심을 일으키게 해야 한다. 만약 계속 일으키거든 계에 머무게 해야 한다. 만약 성적이 인색하거든 보시을 행하게 해야 한다. 만약 지혜가 없거든 지혜를 일으키게 해야 한다. 자식이 이렇게 하면 비소보 은이러 할 수 있다. (비나야유)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박충일

현대만평



종교적 견해 고해성사를...

1996년도 1학기

원효학당 신입생 모집

원효학당은 불법(佛法)을 가장 정확하게 회통적으로 이해한 원효대사의 사상에 입각하여 인류의 미래를 개척할 유능한 한국의 지성인을 배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본 학당은 21세기 새로운 문명의 산실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장 : 이기영 박사 / 부학장 : 정병조 박사

원효학당

서울시 강남구 개포 3동 186-1 / Tel. 3411-6167-8

96년 1학기 신규개설강좌

이기영 박사의 <불교개론> <장자>
정병조 교수의 <인도불교사>
진성규 교수의 <대학>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교과과정 운영안내

- 본 학당의 교과 과정은 다음과 같이 총 12년의 이수기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 동장법사과정 ... 총 48학점 이수
- 은장법사과정 ... 총 24학점 이수
- 금장법사과정 ... 총 24학점 이수
- 유리장법사과정 ... 총 48학점 이수 및 논문이나 경전시험
- 마니장법사과정 ... 총 48학점 이수 및 논문이나 경전시험
- 수정장법사과정 ... 총 48학점 이수 및 논문이나 경전시험
- 금강장법사과정 ... 총 48학점 이수 및 논문이나 경전시험
- 위의 각과정을 이수한 분에게는 각각 해당법사의 학위가 주어 집니다.
- 수강자의 희망에 따라 소정의 과정을 밟지 않고 적성에 맞추어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 이미 타기관에서 이수한 분은 경력이나 이수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가지 이유로 출석수강이 어려운 분들은 본 학당에서 운영하는 통신과정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학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개강일시 ... 3월 12일 (火)

• 모집과정 ... 동장(銅堂) 법사과정 ○○명

•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 ...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사진 2매 (3×4)

•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 서류전형 / 개별통보

• 문의처 ... 본 학당 사무국 (TEL. 3411-6167-8)